



[다시 희망 2020] 대한민국 안보는 흔들림 없다

22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해안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로 시작한 2019년 기해년(己亥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후 판문점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 간 회동으로 다시금 평화 분위기가 올랐지만, 비핵화 방식에서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원하는 북한 간의 의견 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후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튼튼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해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 다시 떠오르길 기대해 본다

전남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순천·광양·곡성·구례·담양·화순 등 전남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오후 10시를 기해 이들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7도, 구례 -6도, 광양·보성·담양·장성·화순 -5도, 나주 -4도, 광주 -3도, 목포 -1도 등 30일보다 8~11도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3도로 예보된 광주에서 -9도 추위를 느끼겠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2020년 시·도민이 자긍심 갖는 광주·전남 되길

보수·진보, 좌파·우파 패거리정치 청산
흑백·이분법적 논리 탈피 미래지향해야
시·도민-자치단체, 상생하는 한 해 돼야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무리는 없지만 너무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거부감이 든다. 사실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리 만큼 다사다난했는지도... 아무튼 2019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잊그제 희망의 황금돼지를 운운하면서 건강과 행운을 빌며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해를 맞이할 시점에 와있다.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적폐니 관행이니 하면서 패거리정치에 휘둘러 떠밀리다 보니 어느

새 한 해의 종착역에 와있는 느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다. 지금 어느시대인데 이념논리에 빠져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온통 세상이 허우적대고 있으니 안타깝고 씁쓸하기만 하다. 언제쯤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젊은이들이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좌표는 정해지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는가. 특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다보니 달리달락에 사로잡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버리고 있

다. 어디 두고보자 당신네들 행태 하나 하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표로 심판하겠다고. 내년엔 정말로 큰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 선거에서의 물갈이를 통한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모습이 사라지고 안정감 있고 차분한 한 해가 됐으면 한다. 하루하루가 갑날 위에 선 것 마냥 이슬이슬하지 않고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예측가능한 세상이 됐으면 한다.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광주 전남의 경우 내년에도 할

일이 태산이다.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름 시도민을 위해 열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길 바랄 뿐이다. 특히 시·도민들이 우리가 사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다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 일임해서는 안 된다. 시도의 정책이 빛을 발하려면 시도민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지역과 지역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 상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조인호 기자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직항 뱃길...목포 3시간

국토 최서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의 뱃길 직항편이 개설됐다. 신안군은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준공영제 사업으로 목포항-가거도 항로에 직항 쾌속선 1척을 투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직항 쾌속선은 목포항에서 매일 오후 2시30분 출발하고, 가거도에선 다음날 오전 10시 출항한다. 목포에서 가거도 도착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이 항로는 운항결손이 발생하면 해상수산부와 신안군이 절반씩 부담해 여객선사에 보조하게 된다. 한해 16억원 안팎의 준공영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직항 개설로 가거도는 하루 2차례 여객선이 왕복하는 1일 생활권에 포함돼 섬 주민 500여명의 육지 나들이가 한결 편해지고,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 연휴로 다음 호 6일자 발행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